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영길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삼성과 애플, 특히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 두 기업 간의 특허 전쟁이 5년째를 맞고 있다. 이 특허 소송에서 지는 쪽은 아마 천문학적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금세기 들어 규모가 가장 큰 특허 전쟁이기 때문이다. 배심원들은 삼성의 유명한 상품들이 애플의 여러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매우 불리한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특허 전쟁에서 애플이 삼성을 도살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다. 이런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지식재산과 이야기의 힘

특허소송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열릴 수 없을까? 한국인도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날이 오려나?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재판을 국제 공용어로 진행하고, 필요한 만큼 권위 있는 외국 전문 법조인을 초빙 판사로 모셔 오면 된다.

인천 송도 같은 데에 국제특허법원을 만들면 세계 각국의 특허 분쟁을 조정하거나 재판을 전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종교다원주의 사회라는 장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권 국가는 물론 유교나 불교 등 다른 종교를 따르는 국가 입장에서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을 망설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교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다. 원불교와 같은 민족 종교는 물론 기독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자유롭게 상생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특허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육성하자라는 특허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육성하자라는

목표 아래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재작년에 결성되었다. 여야(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민간인(이광형 KAS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국회의원 64명을 포함한 추진위원과 각 분야의 운영위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국제 특허 소송에서 한국인의 배심원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보통 배심원의 역할은 자못 크다. 배심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능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은 무엇일까? 그 동인(動因)은 다름 아닌 이야기의 힘이다.

특허 분쟁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기술·디자인 등의 탄생 배경을 배심원에게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면 좋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잉태되었다는 것을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입증하면 된다. 그러면 배심원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설득의 결사대. 특정 상품이 기술이 탄생되는 데 이와 같은 시련과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능한 극적인 구성을 통해 전달하면 주효할 것이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면 그 상품이나 기술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특허의 독창성을 담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지금까지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은 따로국밥이었다. 문학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과학기술을 비롯한 다른 영역과 교감하려는 의지가 박아졌던 편이다.

그러다 보니 문학을 전공하는 청년의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이제는 통섭을 통하여 문학과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전통적 글쓰기도 좋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과학기술이나 지식재산과 연계한 스토리텔링도 그 중 하나다.

마침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상품 및 공간 스토리텔러를 양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무형의 지식재산과 문화 예술의 융합을 전략적으로 추구해 나가면 창의적 두뇌 자원이 선순환하여 한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社說

‘광주 가전산업 육성’ 삼성의 약속 지켜지길

삼성전자가 광주 사업장 일부 생산라인의 베트남 이전을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우려에 대해 ‘광주를 프리미엄 가전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응답’했다. 설비를 해외로 옮기기로 함에 따라 광주 지역 경제계가 크게 술렁이자 대안으로 내놓은 제안이다.

삼성전자의 서병삼 부사장(생활가전사업 부장)은 최근 윤장현 시장과 만나 “광주를 프리미엄 가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서 생산이 중단되는 냉장고와 세탁기보다 훨씬 가격이 높은 ‘무풍 에어컨’과 ‘패밀리리브 냉장고’를 만드는 데 투자해 지역경제의 손실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공장에서는 일반냉장고 생산 3개 라인을 통해 김치냉장고 등을 만들어 왔으나 이 가운데 하나를 베트남으로 가져가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앞서 광주 지역 세탁기 라인 1개를 지난해 연말 중단한 사실까지 밝혀진 가운데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해

지는 등 지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바 있다.

이처럼 생산설비 축소에 따라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삼성 측의 대안은 주목할 만하다. 삼성은 이밖에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기술지도 강화, 상생펀드 확대 조성, 사내 생산 중인 부품의 외주 생산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높은 신뢰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책임이 막중한 삼성이 발표한 프리미엄 가전 육성 계획이 끝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어려움 국면을 호전시키기 위한 눈가림용 대책이라면 기업 이미지 추락과 함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삼성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예회관 기대된다

광주문예회관이 올해 찾아가는 예술단을 활성화하는 등 시민 밀착형 공연을 표방하고 나섰다. 그동안 외부 단체의 공연을 선보이는 데 그쳤던 ‘대관공연장’의 오명을 벗고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끌어올리는 구체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예회관이 최근 확정·발표한 시립교향악단 등 산하 7개 예술단체들의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주 공연장인 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을 벗어나 5개 자치구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가족 음악회’ 신설이 눈에 띈다. 모든 연령층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친숙한 레퍼토리로 잘 계획이라 한다.

기존의 ‘찾아가는 예술단’ 역시 야외 공연을 늘리는 등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전당 주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당산 개방과 연계한 산사 음악회도 준비 중이다. 복지시설·교도소·병원·학교 등 현장에서 올해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진행했던 공연 역시 올해도 계속된다.

사실 이번 문예회관의 변신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광주를 대표하는 공연장이지만 그동안 전문성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날로 높아지는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국내 유명 공연장들이 관객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1년치 공연 라인업을 미리 선보이는 시너제를 실시하는 한편 예술 교육에 주력하는 데 반해, 광주문예회관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비켜서 있었다.

올해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콘텐츠가 있어도 시민들이 향유하지 못한다면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근래 국내외의 문화 예술기관들이 시민들의 미적 안목을 높이는 예술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시민들 곁으로 더욱 다가가고자 하는 문예회관의 노력이 올해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無等鼓

친지들과 식당에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거나,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상념에 빠져 거리를 걷다 보면 불쑥 눈앞에 낀이나 불쑥 엿을 들이치는 노인들을 가끔씩 만나곤 한다.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괴연 예수는 내가 자적이 있어서 이 땅에 왔으며, 십자가 죽은 이후에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인류가 겪을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몰랐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는가?”라고.

저스트 두 잇

저름진 얼굴, 꺾죄죄한 손, 허름한 옷 소매가 눈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소시민은 순간 갈등을 하게 마련이다. “나의 도움을 바라는 이 노인이 도움을 받아도 될 만큼 가난한 사람(deserving poor)인지, 나의 도움 또는 자선이 이 노인의 구걸 행위를 정당화하고 또 연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노인의 거지 구걸에 속

팀 켈러는 그래서 권고한다. “결인을 향한 우리의 자선 행위가 때때로 속고 낭비되고 배반당한다 할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듯이, 상대의 처지를 재며 반응(reaction)하기보다는 우선 행동하라(act)”고.

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이다.

신약성서에 나온 이야기처럼, 아무리 적대 관계인 민족이더라도 강도를 당해 위급한 처지에 빠진 유대인에게 선뜻 손을 내민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무리다. 하지만 대다수가 이 사마리아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데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적은 금액이나마 동전 혹은 지폐를 꺼내들 때도 있지만, 애써 모른 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돈을 줬든 안 줬든, 항상 깨름칙하다는 점이다.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도움을 주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전반기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7년 만에 100도 달성에 실패할 위기에 놓였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연탄이 부족해진 탓에 찾아볼 수 없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 하지만 결정에 참고할 만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비전운동가로 꼽히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는 “결인을

에게 소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관객의 감정을 창작의 동기로 삼고 살아가는 예술가에게 이러한 시민의 주체적 활동은 몇 배 큰 에너지원이 된다. 공공기관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의 관점에서 마중물 정책을 펼칠 때, 그 향유 주체인 시민 역시 문화예술에 관한 자신의 끼를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나가야 한다.

전통시대에 광주예술의 발전 역시 의로운 호남의 정신에 기초한 예술혼의 발현으로 빚어진 산물이었다. 호남의 중심도시로서 광주에 예술가들이 모이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전개했던 것도 동시대를 사는 시민의 삶과 무관하지 않았다. 오

를 내밀어 보자. 저스트 두 잇(JUST DO IT)!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종교칼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양홍 광주 서광교회 협동목사

이여지는 시간 가운데서 한 점을 택해 그전을 묵은 해라고 하고 그 후를 새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 번씩 송구영신의 뜻 깊은 순간을 갖게 한 것은 분명히 인류의 정신적 유산 중 하나입니다. 나는 동양의 커티를 열고 밝아오는 2016의 새 아침을 맞으며 성서의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의 이주자 이주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와 늘 동행했던 사람은 조카 롯입니다. 롯으로 생업을 삼았던 이들 사이에는 가족도 목자도 많았었고,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불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조카 롯은 사양치 않고 기름진 광야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하여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의 적자자 아닌 언덕배기 서쪽을 차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비록 서로 다투지 않는 혈육의 평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길이 걱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훼(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와 격려하고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라.” 참으로 크고도 넘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한 쪽만 바라볼 때에는 그곳이 곧 목장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넓게 바라볼 때에는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 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고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

훼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리라”고 약속한 땅은 후손의 영원한 복지가 됐고, 자손은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조상다운 믿음, 선구자다운 비전, 개척자다운 희생, 아름다운 양보, 선배다운 아량, 귀중한 본을 남겼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훼가 창조하셨고 아훼를 닮게 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무가치한 것을 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큰 것을 위해 물질적인 것을 희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시간적인 것을 떠날 수가 된 것입니다.

롱 펠로우들은 ‘인생 천가’에서 “말 못하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자. 우리도 장엄한 삶을 이룰 수 있고 떠날 때는 시간의 모래 위에다 우리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음을...”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사회가 그 속에 품은 꿈이 무엇이었나에 따라 운명이 좌우됩니다. 꿈이 아름답고 장엄하면 그만큼 아름답고 장엄한 것을 이룩할 것이고 꿈이 없는 자에게는 새해 첫 날이 밝아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법입니다.

서양 속담에 어떤 곳까지 가려면 ‘눈에는 꿈, 귀에는 소리, 입에는 노래, 손에는 칼’을 가지라 했습니다. 차원 높은 꿈을 갖으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은 칼(실력)이 없는 꿈은 공상이 되고, 입에 노래가 없는 꿈은 무거운 짐이 되고, 귀에 소리(깊이요, 생명이신)를 갖지 못한 꿈은 차원 높은 꿈이 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남이 찾지 못한 세계를 찾고, 바라보며 사는 하루는 희망의 하루요, 희망으로 사는 사람의 하루는 천년같이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문이 활짝 열리고 길을 트이며 사랑과 보람으로 채워질 것을 바라는 나의 새해, 첫 날의 기도가 합디다. 내일은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후회 없이 살면 내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일이 또 주어지면 그것은 또 다른 은혜일 뿐입니다. 나는 하루를 일생으로 사는 삶을 점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점이 연결돼 선이 되듯, 하루하루의 점이 연결되어 생을 이룹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날의 시작이 잘못되면 잘못된 날이 계속되고, 시작이 잘되면 잘된 날이 계속 될 것입니다. 단 한번 밖에 없는 주체인의 생인대 하루하루를 천년같이 소중한 삶으로 채워가 밝으며 따리를 귀중한 자취를 남겨야 하겠습니다.

광주, 진정한 ‘문화수도’ 되려면

마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사랑과 관심을 구하면, 그 길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참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문화전당은 아시아적 가치와 정신을 문화예술로 표현하는 문화발전소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현대를 지나면서 열강의 식민지수탈을 기억하는 아시아 각 민족과 그 구성원에 의해 생성된 아시아 문화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질곡의 역사에서 억눌린 아시아인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와 그를 극복하면서 형성된 연대·배려의 공동체적 가치와 정신을 문화로 표현하는 문화전당이라면 광주의 빛깔과 잘 어울린다. 따라서 문화전당의 발전 방향과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광주시민의 공감을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관광객으로, 또는 유학생으로 광주에 첫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문화전당의 위치와 형상, 콘텐츠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취향과 분야에 따라 전당시설 어느 곳이든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활발한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자리 잡으려면,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아야 가능할 일이다.

문화전당 개관일을 알리는 홍보물을 광주 시가의 가로등에 붙걸었다. 안타깝게도 해넘이를 한 후에도 여전히 걸려 있는 홍보물을 보고 문화전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시들어 간다. 철지나 빛 바랜 홍보물과 같은 이미지를 시민에게 선사하는 전당이라면 시민의 애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은 문화적 권리를 가진 문화주권자로서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창작·유통·향유라는 생태환경에서 가장 정점에 있다. 최근 회자되는 ‘문화로 먹고사는 시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일상적 생활 속에서 왕성하게 문화예술을 소비할 수 있을 때 공급자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다각적인 유통활동이 촉진된다. 광주공동체가 하나의 방향, 즉 문화도시 만들기에 나서는 가운데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의 각 영역을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시민이 문화예술의 현장에 나가 주말을 즐기면 문화예술의 유통이 촉진된다. 광주시민에게는 예향의 전통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유전자라 흐르고 있다. 자신만의 감성으로 박수치고, 예술을 체험해보고, 느낀대로 창작하는 예술가들

에게 소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관객의 감정을 창작의 동기로 삼고 살아가는 예술가에게 이러한 시민의 주체적 활동은 몇 배 큰 에너지원이 된다. 공공기관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의 관점에서 마중물 정책을 펼칠 때, 그 향유 주체인 시민 역시 문화예술에 관한 자신의 끼를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나가야 한다.

전통시대에 광주예술의 발전 역시 의로운 호남의 정신에 기초한 예술혼의 발현으로 빚어진 산물이었다. 호남의 중심도시로서 광주에 예술가들이 모이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전개했던 것도 동시대를 사는 시민의 삶과 무관하지 않았다. 오

이런 주말에는 금남로, 충장로,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 양림동, 문화전당 등 전시, 공연과 축제 등 문화예술이 펼쳐지는 현장으로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서, 신명나게 즐기고 감상을 나누는 대화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예향의 시민답게..

기고



박광석 전 광주시 문화예술과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의 장이다. 아시아 최대규모의 시설인 문화전당은 문화국가로 전진하는 미래 한국의 비전이 담긴 상징적 가치의 산물이다. 전세계가 문화국가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적 조류에 맞설 문화한국의 꿈이 이국 광주의 한복판에 자리하게 된 것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심당심 출이라도 추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출범 원년을 경과한 지금 문화도시 광주의 시민들은 문화전당에 대해 체감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 가끔 전해지는 몇몇 불협화음만 접할 따름이다. 문화전당과 광주 문화예술과의 괴리 문제는 시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리 어려운 숙제도 아니다. 거창한 수사, 장대한 미래비전의 도그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